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1.2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교도소 수감자 급진화 예방 대책 발표

- 1.24 英 법무부는 최근 수감 중인 테러범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급진화 영향을 미치는 등 우려가 커지자, △극단주의 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교도관 훈련 강화 △대테러 전문요원 증원 △위험한 수감자들 상호분리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

미주

○ 美, 암호화폐의 테러·범죄 악용 방지 강조

- 1.20 「재닛 옐런」 美 재무부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테러단체의 자금으로 악용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, 암호화폐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

○ 美, 미국내 극단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

- 1.23 로이터통신은 「바이든」 美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폭력적 극단주의에 의한 국내테러 위험성에 대해 전면 평가를 지시하였으며, FBI와 국토안보부가 공동으로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

○ 美,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재검토

- 1.23 「제이크 설리번」 美 국가안보보좌관은 탈레반이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와의 절연 및 아프간 정부와의 협상에 대해 재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, 올해 5월까지 계획된 아프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 보류 및 對아프간 전략의 전면적 수정 가능성을 시사

아 · 태평양

- 과기정통부·관세청, 총기·유해물질 밀반입 차단장비 개발 추진
 - 1.19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4년간 총 315억원을 투입하여 화물內 은닉된 마약류·총기·유해물질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복합 엑스레이(X-Ray) 장비 및 우범입국자 CCTV 영상 재식별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원안위, 테러대비 등 원자력안전 연구에 655억 투입
 - 1.22 원안위는 △가동원전 안전성 확인 △중대사고 및 내·외부 위협 대응체계 △원자력시설 대상 테러 및 해킹 대비 등 '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655억원을 투입하여 원자력 안전 규제기술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아프간, 석방한 탈레반 조직원 600명 테러 모의 혐의로 체포
 - 1.25 「함둘라 모힘」 아프간 국가안보보좌관은 美-탈레반間 합의에 따라 석방한 탈레반 수감자 600여명이 정부관리와 민간인에 대한 테러공격을 모의하기 위해 전장으로 복귀해 다시 체포했다고 발표
 - * '20.2월 美-탈레반은 탈레반 수감자 5천명과 아프간 정부군 포로 1천명 맞교환 합의

중 동

- 이란, 「트럼프」 前 대통령 겨냥 보복공격 경고
 - 1.21 「하메네이」 이란 최고지도자는 트위터에 「트럼프」 前 대통령에 대한 드론 공격을 시사하는 이미지를 공개하며, '20.1.3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「솔레이마니」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복수를 다짐
 - * 1.22 트위터는 同 계정을 영구정지 조치

카불, 구급차 폭파 테러

- '18.1.27 12:15경 아프간 카불 소재 내무부 건물 근처*에서 구급차량 (적신월사)을 이용한 자폭 테러가 발생, 최소 103명 사망·235명 부상
 - * 여러 정부기관 사무실이 위치, 도로에는 보안 검색대 설치·운용
 - 테러범들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한다는 핑계로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한 뒤 두 번째 검문소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던 중 차량을 폭파
- 테러 직후 탈레반은 이번 테러가 “아프간 경찰 차량을 겨냥했던 기획 테러”라며 배후를 자처
- 「가니」 아프간 대통령은 탈레반의 테러를 강력 비난하고, 파키스탄과 탈레반의 테러활동 증거를 공유하며 평화회담 취소 등 강경 대응
 - * 탈레반은 카불호텔 테러(1.20) 및 잘랄라바드 구호단체 테러(1.25) 등 연쇄테러 자행
 - 한편, 아프간 정부는 1.28을 ‘애도의 날’로 선포, 프랑스는 에펠탑 조명 소등으로 추모하였으며, UN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도 규탄 성명 발표

< 적신월사(Red Crescent Society) >

- (개요) 붉은 초승달 모양의 표장을 사용하는 이슬람권의 적십자사
- (설립) 1877년 이슬람 국가인 오스만투르크 제국에서 기독교를 연상시키는 적십자가 이슬람교도에게 거부감을 줄 것을 우려하여 부상병 구호대 표장을 붉은 초승달로 사용한 이래 1929년 국제적십자사가 표장 사용을 공인
- (사용국가) 국제적십자·적신월연맹(IFRC)에 가입한 185개국 중 33개국의 이슬람 국가들이 각종 구호 및 사회복지, 혈액사업 등 인도적 활동을 하는데 사용
- (주요활동) '03년 이라크 전쟁에서 적신월사 요원들이 각종 구호활동을 펼쳤으며, 특히, '07년에는 아프간에서 우리국민이 탈레반에 납치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탈레반과 대면 접촉하여 협상 중재·인질인수를 수행토록 지원

